

## 이병호(BYEONGHO LEE)의 기독교적 영성형성(Transformation) 스토리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CBTS MDIV 3 학기에 재학중인 55 세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MDIV 에 재학중인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32 년간 장교로 근무하다 2016 년 가을 학기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선교에 대한 활동은 1990 년 대한민국 최남단 부대인 완도해안경계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섬에서 삶의 의지 없이 근무 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중대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서 완도 청해진군인교회를 대대장을 도와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교의 신분상 1~3 년 마다 변경되는 대한민국 전후방 각지의 근무지에 따라 16 개의 군인교회를 30 년간 섬기면서 교사 및 부장, 성가대, 전도/선교회 회장, 기독교인회 임원 등의 제한된 활동을 하면서 군선교/복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2 년 평택대학교 학군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생인 ROTC 후보생의 전도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병사도 중요하지만 장교가 되는 매년 1 만여명의 이 ROTC 장교후보생들이 군의 간부가 되는 중요한 역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군의 리더가 되지만 이들을 전도하여 고넬료 백부장 같은 군선교와 군복음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되게 하는 사명을 재인식하고, 전국단위의 대한민국 ROTC 기독교장교 연합회 ROTC 후보생 선교본부 부분부장과 새물결 선교회 ROTC 기독교후보생 담당 간사로서 전력투구하게 되었고, 지금 CBTS MDIV 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장교로 근무를 마치고, 공직자로 계속 살아 간다면 경제적인면이나 신앙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를 이렇게 CBTS MDIV 로 부르신 것- 젊은 장병으로 구성된 군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라는-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CBTS MDIV 에 입학하면서 저는 4 년의 목회학 과정을 잘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이미장교 생활을 하며 수년간 담당하던 군 선교를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미국에 불러 주셨으니 잘 하자고 다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생각은 막상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부하기에는 신학의 학문적 내용이나, 생활측면에도 경제여건이나 언어와 문화 등등의 다양한 갈등 요소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저를 어렵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며 고생하는가 하는 회의와 번민 속에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6 년 11 월 이승중 교수님의 목회윤리를 수강하며, 한국의 기독교와 북한선교 문제 등을 미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명자로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의 목회자,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양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가르칠 때에 십자가 부활과 구속의 섬김이 드러나는 관계와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CBTS 에서 GREEN 장학금도 주시어 경제적인 면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갈급 했고 피폐 했던 저의 영성을 되돌아 보며 성경 묵상과 기도와 새벽 예배나 주일예배 등의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안정을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 년 4 월 양정모 교수님의 기독교윤리를 수강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미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 년 가을 학기에 박사무엘 교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독교 영성훈련”을 수강하며 영적 자서전과 영성일지 작성에 대해 지도를 받으며, 또한 교수님이 제시한 게리 토마스나 헨리 나우웬, 리처드 포스터의 저작과 접하면서 저의 목회자 영성을 향상시키는데 뚜렷한 방향을 제시 받고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는 저의 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CBTS MDIV 를 계속 더 힘차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과 ROTC 장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고넬료 백부장 되게 만드는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